제1,2,3 RUTC 실현 : 세계 살릴 축복을 누릴 선교의 틀(사54:1-3) 1/27/2019

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헌신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다. 영국에 침례교 선교회(Baptist Mission Society)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고, 그 자신이 먼저 인도 선교사로 파송된 윌리암 캐리가 이런 말을 했다.

“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.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”

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세계를 살리고, 237개국 모든 민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다.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로 축복하셨다. 올해 우리는 더 위대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.

1. 일단 분명한 결론부터 잡으라. 선교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, 평생 이 축복 누리다 가야 한다.

1)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다. 나를 살려서 세상을 살리겠다는 것이다.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방법이다

행1:8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정말 축복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(학업, 기능, 직업, 경제, 건강까지)

이 분명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,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증거로, 축복으로 바꾸셔야 한다.

2)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을 자꾸 당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결론을 놓치고 살기 때문이다.

①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,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.

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너와 네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.

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(창20:17-18, 21:22, 23:6)

그러나 그 후손들은 늘 자기들 밖에 몰랐다. 선민의식, 민족주의, 개인주의의 틀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.

그러면서 늘 전쟁하고, 늘 패배하고 산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니다.

② 대표적인 사건이 요나의 실패였다. 하나님은 앗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.

요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못 가겠다는 것이다. 물 속에 들어가 실컷 고생하고, 억지로 가서 조금 전도했다.

만일에 이 요나가 제대로 선교를 했다면 훗날 이 앗수르 족속이 이스라엘을 짓밟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.

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축복받고 쓰임받을 사람인지를 모르면 깨달을 때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.

③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다. 분명히 예루살렘, 유대, 사마리아,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, 안 간 것이다.

안 가고, 눌러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사마리아로(행8:4), 안디옥으로(행11:19) 보낸 것이다.

그 흩어진 자들 중에 전도와 선교에 헌신한 자들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, 우리도 구원 받은 것이다.

2. 어떻게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을 내 것으로 누릴까? 이 축복을 누릴 틀을 만들라는 것이다(CVDIP)

1) 내 안에 그 축복을 누릴 선교의 틀(시스템)을 만들어야 한다. 내가 그 축복의 시작이 되라는 것이다.

윌리암 캐리라는 사람이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다. 그가 어느날 자기 안에 이 CVDIP를 시작한 것이다.

그가 강하게 은혜를 받고, 늘 붙잡았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.

① 말씀 속에서 언약을 잡은 것이다(Covenant).

“네가 좌우로 퍼지며, 네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,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”

나와 내 후손을 축복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다.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(마28:18-20, 행1:8)

② 그 말씀이 성취될 미래와 축복를 미리 보는 것이 비전이다(Vision). 그 미리 보는 것이 믿음이다(히11:1)

왜 힘들고, 갈등이 많냐? 늘 당장 어려운 환경, 현실만 보지 언약 속에 있는 미래를 보지 못해서 그렇다.

1절에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죽어나가 아이가 없고, 홀로 된 여인이라도 노래하고 외쳐 노래하라는 것이다.

지금 노래하고, 찬송할 환경, 현실이 아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도 세계 살 리는 일을 할 수 있다(다른 일, 나만의 일, 제3의 일). 미리 보고, 미리 기뻐하고,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다.

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진짜 미래(Fact)를 보며 믿음 회복하고, 감사할 때, 그 때 마귀도 떠나는 것이다.

③ 이제는 내 안에 꿈을 꾸라는 것이다(Dream).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 시작해보라(요엘2:28)

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, 꿈을 꿀 때 내 뇌도 살아나고, 성령이 역사하신다.

엄마를 잃고 외로운 요셉이 이 꿈을 꾼 것이다(창37:5). 쫒겨 다니던 다윗이 이 꿈을 꾼 것이다(시57:11).

구두 수선공 윌리암 캐리가 이 꿈을 꾸었다.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수 없었던 리빙스톤이 이 꿈을 꾼 것이다.

④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림을 그리게 하신다(Image).

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방향을 맞추고 가는 데, 조금씩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, 분명한 것이 보인다.

⑤ 내가 무엇을 놓고 도전해야 하는 지 할 일이 보인다(Practice).

내가 해야 할 공부가 보이고, 지금 하는 일에서 도전할 수 밖에 없는 문이 열리는 것이다.

2)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이 선교의 틀(시스템)을 만들어야 한다.

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 하는 교회되면 안 된다.

① “네가 좌우로 퍼지며, 네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,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”(3절)

“좌우로 퍼진다”, 전도 운동, 지교회 운동, 선교 운동이다. “네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”, 우리 후대들이 237개국 살리는 제자로 자라게 하라는 것이다. 렘넌트 운동이다. “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”,

치유 사역이다.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고,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.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이다.

② 이 틀(시스템)을 만들기 위해서 2절에 우리 교회의 CVDIP가 있다.

네 장막터를 넓히고(언약), 네 처소의 휘장을 넓히고(비전), 움츠리지 말고(꿈), 너의 줄을 길게 하고(이미지),

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(실천). 이 축복을 받아 우리 교회에 성전과 RUTC가 세워지고, 다민족 사역자들이 세워지고, 렘넌트들이 훈련되어졌다. 이제 더 크고 견고한 축복과 응답을 바라보며 제2의 시작을 하는 것이다.

3) 세계 각 나라에 실제적인 이 축복의 틀(시스템)을 만들어야 한다.

①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. 우리가 함께 받을 축복이다

②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한다. 의료 선교팀, 군 선교팀을 비롯해서 계속 일어나야 한다.

③ 렘넌트 중에서 목회자 선교사들이 나와야 한다(한국을 살린 초창기 선교사 토마스, 아펜젤러, 언더우드)

결론-세계복음화, 하나님의 결론이고,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.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밖에 없도록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겠다는 것이다. 오늘의 헌신예배가 그 축복을 위해 더 크고 넓고 틀을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한다.